

부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지원 지음

Sweetbook



부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지원 지음

부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둔 작은 마을에는 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서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부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테디베어 인형이 살고 있었죠. 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마음을 담아 거대한 크리스마스 장식 양말을 뜨개질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부는 평범한 인형이 아니었어요. 손끝에서 특별한 뜨개질 실력이 발휘되곤 했지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실은 마법처럼 변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부는 이 마법의 실로 모두에게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색깔의 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실들은 각각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했죠. 부는 마을 곳곳을 돌며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부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엘라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부에게 오래전 크리스마스에 처음 빵을 구웠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해주셨죠. 그리고 그 추억이 담긴 붉은색 실을 건네주셨어요.



다음으로 부는 목공소를 지나다가 친절한 목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자신이 만든 첫 번째 나무 장난감을 선물 받았던 기억을 부와 나누었고, 그 기억이 서린 푸른색 실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부는 마을의 아이들과 놀면서 그들의 웃음소리와 눈부신 눈사람을 보며 영감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부에게 순수한 마음이 담긴 하얀색 실을 전해주었죠. 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실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부는 여러 색깔의 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각 실마다 개성이 넘치는 색깔과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부는 이 실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며 크리스마스 양말을 짜기 시작했어요.



뜨개질을 하는 동안 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실을 엮었어요. 마법의 실은 부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점점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도 부의 노력을 응원하며 지켜보았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부는 밤새워 뜨개질을 하여 거대한 양말을 완성했어요. 마을 광장에 걸린 양말은 화려한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났죠. 사람들은 그 양말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가 만든 양말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부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모두가 부를 향해 고마움을 전하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답니다.



부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발 행 일 2024년 02월 05일
지 은 이 이지원
제　　작 스위트북

Ai 스토리교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6차 901호 | 02-886-0156
www.sweetbook.com | storyclass.ai